

혼탁·과열 통합특별시장 경선...네거티브·흑색선전 난무

허위 득표율 문자·카드뉴스 놓고 공방 “경선테러” vs “가짜뉴스” 고발전 비화 공약·자질검증 넘어 도넛은 비방 ‘눈살’ 원팀·공명선거 실증 구태의연 선거 행태 전국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 취지 퇴색 김영록 “싸움꾼이 필요한가” 우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이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 지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게 민주당 중진급 후보들이 출마한 만큼 ‘원팀 선거’, ‘공명 경쟁’을 기대했으나 선거 초반부터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에 이어, 고발전까지 난무하면서 구태의연한 선거 행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 후보 5명이 확정된 가운데 각 후보 간 공방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예비경선 직후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논란을 시작으로 카드뉴스 왜곡 의혹과 정책 공약을 둘러싼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측은 예비경선 직후 허위 득표율 문자가 유포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경선 테러”라며 조직적 유포 정황이 있는 관련자 7명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정훈 국회의원은 측은 민 의원 측이 배포한 카드뉴스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당 규상 경선 득표율을 공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민 의원이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오인하도록 의도한 가짜뉴스”라고 중앙당 선관위에 고발했다.

후보 간 정책과 자질 검증을 내세운 설전도 격화되고 있다.

앞서 신 의원 측은 지난 19일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를 향해 공개 ‘맞장 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내고 500만원 반도체 투자 공약에 대해 “명백히 허울 뿐인 장밋빛 공약이며 사·도민을 기만하는 희망고문일 뿐”이라

고비판했다. 신 의원 측은 또 전남 인구 감소 문제와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분리, 서울 주택 보유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 예비후보의 8년 도정 운영 결과는 무능하다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 “500조원 반도체 투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서의 공약”이라며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이 500조원 이상 투자할 수도 있겠다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 측은 “사실과 반하는 주장까지 하면서 저를 공박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자칭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염려된다”고 맞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 17일 광주MBC TV토론회에서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가 민 의원의 과거 광산구청장 시절 비서실장의 뇌물 사건을 언급하며 청렴도 문제를 제기하자, 민 후보는 “네거티브가 등장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반박하는 등 후보 간 신경전이 노출된 바 있다.

이처럼 후보 간 비방전이 잇따르자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국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후보들 스스로 경선의 품격을 지나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이 통합의 비전과 미래 청사진, 광주·전남 상생 전략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면서 ‘원팀 선거’는 커녕, 고발전이 난무하는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꾼이 필요합니까, 싸움꾼이 필요합니까’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D-100일”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책임질 통합특별시장, 일꾼이 필요한가? 싸움꾼이 필요한가? 대세는 김영록”이라고 일부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이제부터라도 원팀 기조 속에 정책·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같은 당 후보들끼리 고발과 네거티브 공방에 치우치게 되면 유권자들의 피로도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은진·양시원기자

민주 목포시장 경선 강성휘·이호균 대결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이 강성휘 후보와 이호균 후보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목포시장 경선 참여

자로 강성휘·이호균 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6·3 지방선거에 나설 목포시장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김재정기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한 뒤 승리를 기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박광태 前광주시장 “김영록 지지” 선언

前공직자·기업인 등 50여명 “승리 기원” 신성장동력 뷰티산업 육성 공약도 발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광주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직자와 기업인, 언론인 등 50여명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박 전 시장 등은 이날 광주시 광천동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 예비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며 환담했다. 박준호 전 KBC 보도본부장과 조용진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박 전 시장 등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은

그동안 소외받아 온 광주·전남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한 역사적 쾌거”라며 “지난 8년 동안 전남지사로 재직하면서 전남을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 검증된 역량과 열정을 가진 김영록 예비후보가 초대 특별시장의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의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낸 주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뷰티 관련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뷰티산업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천연물·원료·바이오와 광주의 장점인 디자인·AI·마케팅을 연계해 기존 의료·헬스케어 파츠에 뷰티산업을 한데 묶은 ‘뷰티·메디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산업을 뒷받침하고, 뷰티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는 아시아를 뛰어넘는 세계의 문화수도도 성장할 것이며 뷰티산업은 그 한 축”이라며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40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전남·광주 뷰티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

교통서비스 4대 혁신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23일 전남·광주 요금체계를 하나로 묶어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하는 ‘교통서비스 4대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서비스는 높이고 교통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50km를 이동할 경우 서울·경기 간 교통 요금은 3천원대인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교통서비스 4대 혁신 정책으로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 ▲월정액 통합 교통패스 ‘남도패스’ 도입 ▲농어촌 공공교통 확대 ▲단계적 무상교통 추

반면, 광주에서 장흥까지는 1만3천원 수준에 달해 4배 가까운 교통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광주를 하나의요금체제로 통합하고 버스·철도의 환승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해 생활권 내 이동 시 추가 요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통근·통학·통원 치료 등 필수 이동에 대해서는 제각각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해 이동 거리가 늘더라도 요금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구소
소해보임협회